

사랑을 이어주는 절의 과거와 현재

사이간덴지 절 바로 왼쪽에는 ‘사쿄가바시’라고 불리는 용암길이 있습니다. 이 이름은 ‘샤쿄(写経)’, 즉 불교 경전의 한 구절을 돌에 읊겨 적은 후 이를 기도의 형태로 묻는 풍습에서 따온 것입니다. 도로가 정비되기 전에는 사쿄가바시가 분화구로 오르기 위한 주된 길이었는데, 실제로 신성한 화산의 중심부까지 오르는 것이 허용된 사람은 승려와 신관뿐이었습니다. 일반인들은 150m 정도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. 참배자들의 대부분은 ‘온다케산마이리’라고 불리는 혼인 전 관습으로 이 곳에 참배를 하러 온 젊은 커플이었습니다.

심신이 깨끗한 사람만이 이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. 용암 모양은 뱀의 배와 유사합니다. 마음이 맑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길이 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는 무서운 구렁이로 보였다고 합니다.

온다케산마이리를 하는 사람들은 봄과 가을, 춘분과 추분 즈음에 이 절을 방문했습니다. 1860년대 후반까지 참배자들은 절 서쪽 탁 트인 곳에 사는 야마부시(산악 수행자)들에게 인도받아 산을 올랐습니다. 이 야마부시들은 메이지 정부가 불교를 외국에서 들어온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토착 신도와 강제로 분리하여 배척했을 때 퇴거당했지만, 그 후에도 많은 참배자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. 다이쇼 시대(1912-1926) 기록에는 붉은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긴 줄을 지어 산을 오르는 모습이 붉은 석산화처럼 보였다고 적혀있습니다.

사이간덴지 절은 예로부터 인연 맺기(결혼과 연애의 인연)에 효험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. 이 효험이 현대적으로 해석되어 사이간덴지 절 오쿠노인은 2011년에 공식적인 ‘연인의 성지’(프러포즈에 딱 좋은 로맨틱한 장소라는 의미) 인정을 받았습니다. (일본에는 약 140 곳의 연인의 성지가 있습니다. 한 비영리단체가 일본의 지방활성화와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.)

사이간덴지 절에는 예전에 금속으로 된 말 조각상이 있었는데,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을 위한 공출로 녹여지고 말았습니다. 2023년 3월 말을 대신해 붉은 화강암으로 된 만족스러운 표정의 소 조상이 안치되었습니다. 금속은 화산가스와 산성비의 영향을 잘 받기 때문에 받침대 설명판은 사가현의 아리타 도자기로 되어있습니다. 참배할 때는 꼭 이 소를 쓰다듬으며 소원을 빌어보세요.

2016년의 구마모토 지진과 그 후 장기화된 화산활동으로 인해 아소산 로프웨이는 폐지되었습니다. 현재는 자가용과 아소산 분화구 셔틀버스로 분화구 견학을 할 수 있습니다. 참배자 수는 아직 이전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, 사이간덴지 절 주지스님은 이러한 최근의 시도가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

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